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론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집회)

신자들의 미래의 몸

현재의 몸, 이것은 아무리 가꾸고 단련시키고 보약을 먹으며 잘 관리하여도 결국 죽어 썩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몸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신다(요일 3:1-2). 그리하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시 16:11: 마 7:14).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구속 때문에 영광의 몸을 받게 될 것이다(롬 6:23).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르침 가운데서 특별한 것 중 하나는 사망은 죄로 인하여 생겨진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신자들의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하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었다(고전 15:12-13).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의 참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고전 15:17-19). 바울은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설명한다(고전 15:21-22). 현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연결됨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고전 15:35-38). 회갑 사상에 사는 몸은 없어지는 것이요, 영은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깨우치고 있다. 작은 씨앗이 변화되어 큰 나무가 되는 분명한 연결성을 말하고 있다. 신자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변형되어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각 사람이 각각의 부활의 몸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의 몸을 능가할 것이다(고전 15:39-46).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였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자이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새롭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훌륭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니엘 역시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증언하고 있다(단 12:1-3). 바울은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비교해서 언급하고 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육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산 영(L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Life-giving Spirit),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서 나 자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전 15:53-54). 현재 입고 있는 몸과 달리 우리의 새로운 몸은 연약하지 않을 것이다. 율령을 가진 실재적인 존재이지만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진 것으로 표현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활한 몸이 육의 몸(Flesh)일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즉,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전 15:50)에 근거하고 있으나 성경에서 이 "혈과 육"은 실재적인 몸을 가리키는

데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마 16:17, 갈 1:16, 엡 1:22). 오히려 전체적인 인간 곧 약하고 쇠하며 부패하는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데에 쓰였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이 그랬듯이 새로운 몸은 육의 몸이 될 것을 말해 준다(눅 24:39). 현재의 몸, 곧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몸은 장차 영 영원한 천국에 합당치 못하므로 그때에 그곳에 맞도록 썩지 않을 영광된 몸으로 변형될 것이다(살전 4:16-17).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고전 15:51). 이 말씀은 어떻게 부활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묘사해 준다. 부활의 몸이 꼭 필요한 것은 육에 있는 사람을 완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컬어지므로 피곤하지 않고 음식도 필요 없을 것이다(고전 6:13). 그러나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도 있다. 결혼도 필요 없다(22:3-32, 2코 12:35-36). 하나님의 영광을 반성하여 찬란한 것이다(계 1:16, 단 12:3). 천사보다 위에 있을 것이다(고전 6:3).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요일 3:2; 요 16:23). 하나님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소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소생될 것이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 부활 사상이 신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준다. 우리가 지금은 여기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롬 8:18). 비록 죽음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지만 이 죽음은 곧 소멸될 것을 믿기 때문에 평화와 안위를 가질 것이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시공간에 대한 신비를 알아보는 인간의 희망도 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만을 전하는 충현의 젊은이들 2005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천국 일꾼이란 십자가를 전하는 중인을 의미합니다(행 1:8, 딤후 2:3). 이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요 이를 위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음을 말함입니다(마 16:24). 따라서 십자가를 전하는 충현의 젊은이들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번에도 교회는 상반기보다 더 많은 2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장학생은 충현교회에 등록한 지 2년 이상이 된 자로서 고·대·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교회는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복음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롬 15:16). 먼저 구제금이 아니므로 가정 형편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성적 장학금이 아니므로 학교의 장학금과 다릅니다. 우리 교회 장학금의 최우선 기준은 십자가 복음의 헌신입니다(고전 4:1). 이에 따라 장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세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일예배와 찬양예배, 금요집회 출

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일에는 반드시 한 부서 이상 지속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은 복음에 대한 확고한 신념(논술과 면접)이 있어야 합니다(딤후 2:15).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많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 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천국일론 양성을 위한 전 선도의 하나 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물론이고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곳에 십자가는 전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장학 헌금을 내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골 4:7). 충현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전파될 십자가의 복음을 기대하며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 하반기 장학생 명단은 7면을 참조하세요.)

THE LIFE OF BORN-AGAIN CHRISTIANS

(8) But now you also, put them all aside: anger, wrath, malice, slander, and abusive speech from your mouth. ... (16) Let the word of Christ richly dwell within you, with all wisdom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with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thankfulness in your hearts to God. (17) And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hrough Him to God the Father. (Colossians 3:8-17)

Who are born-again Christians? Galatians 2:20 says,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 This Bible verse is Paul's testimonial definition of a born-again Christian. He also bears witness to the purpose of being born again, "knowing this,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in order that our body of sin might be done away with, so that we w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Rom. 6:6). Born-again Christians are people who no longer have an old-fashioned earthly life controlled by sin, but a brand-new heavenly life controlled by Jesus. If you happen to be one, what is different about you now from before? What is your new life all about?

The life of born-again Christians is about laying aside old actions, like anger, wrath, malice, slander, abusive speech, and lying (vv. 8&9). Ephesians 4:22 says that believers in Jesus Christ "lay aside the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in accordance with the lusts of deceit." The writer of Hebrews emphasizes that God's children "lay aside every encumbrance and the sin which so easily entangles" them (Heb. 12:1). In essence, the life of born-again Christians has a lot to do with the laying aside of evil practices. Getting rid of the bad things makes room for good things. Are you taking off your dirty and filthy old self?

The life of born-again Christians involves putting on a new self "who is being renewed to a true knowledge according to the image of the One who created him a renewal in which there is not distinction between Greek and Jew, circumcised and uncircumcised, barbarian, Scythian, slave and freeman, but Christ is all, and in all" (vv. 10&11). God's holy and beloved children "put on a heart of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bearing with one another, and forgiving each other, whoever has a complaint against anyone; just as the Lord forgave you, so also should you" (vv. 12&13). Born-again Christians put on new things, especially the garment of love, "Beyond all these things put on love, which is the perfect bond of unity" (v. 14). True believers put off the old and put on the new so that they can "walk in newness of life" (Rom. 6:4). Are you putting on your clean and fresh new self?

The life of born-again Christians concerns seeking godly things. Colossians 3:1 says, "Therefore if you have been raised up with Christ, keep seeking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Abraham "was looking for the city which has foundations,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Heb. 11:10). Although he died in faith, not receiving the promises, while he was alive he always sought after them. Born-again Christians look for God's makings and workings, not earthly things like fame and fortune or recognition and respect. They are always seeking heavenly treasures. Are you looking for the things above?

Born-again Christian life regards the peace of Christ, which rules

every circumstance,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to which indeed you were called in one body; and be thankful" (v. 15). Are you really a born-again Christian? Right now, do you have peace in your heart? If you do not know that is trouble. Jesus said,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nor let it be fearful" (Jn. 14:27). The presence of Christ brings the peace of God. Philippians 4:7 says,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God's people have peace within their hearts, and they share it with others. Does the peace of Christ fill your heart?

The life of born-again Christians is about worship, "Let the word of Christ richly dwell within you, with all wisdom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with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thankfulness in your heart to God" (v. 16). Singing, praising, and "always giving thanks for all th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o God, even the Father" is worship (Eph. 5:20). Do not fight with God or others because of pride. After Paul and Silas were beaten and imprisoned, they prayed and sang hymns of praise to God (Acts 16:25).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or environment, born-again Christians sing and worship to the Lord God. Can you worship the Lord God in every circumstance?

The life of born-again Christians involves power. God gave Jesus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Mt. 28:18), and Jesus gives born-again Christians power through His Holy Spirit (Acts 1:8). Before Peter received the Holy Spirit, he was a coward who denied Christ. After he received the Holy Spirit, he stood in front of all Jerusalem proclaiming Christ (Acts 2:14). Jesus empowers believers, so that they can glorify and serve God to the fullest. Have you receiv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orn-again Christians live a life of victory. Jesus told John, "I am the first and the last, and the living One; and I was dead, and behold, I am alive forevermore, and I have the keys of death and of Hades" (Rev. 1:17-18). God gives born-again Christians the victory through their Lord Jesus Christ (1 Cor. 15:57). John tells us, "For whatever is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our faith" (1 Jn. 5:4). Romans 8:37 says, "But in all these things we overwhelmingly conquer through Him who loved us." Born-again Christians have an exciting, eternal, and triumphant life. Is your life a life of victory?

2 Corinthians 5:17 says,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Have God's new things come to you? If you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you will receive all these new and heavenly things. God wants to give you a new self, new nature, so that you can glorify Him and serve righteousness. His amazing grace changes any human sinner into a born-again Christian. Amen. 🙏

다음을 주일 설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 ⁽⁸⁾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 ⁽¹⁶⁾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¹⁷⁾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 3:8-17)



김성훈 목사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2:20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성경 구절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거듭남의 목적에 대해서도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나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에 종노릇하며 세상에 얽매어 살았던 옛 생활을 청산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완전히 새로운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 삶은 지난 날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거의 행위를 벗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행위를 벗어버립니다.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거짓말과 같은 부끄러운 일들을 말입니다(8-9절). 에베소서 4장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슬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가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히 12:1).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악한 행실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없애야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실 공간이 마련됩니다. 여러분은 더럽고 추한 옛사람을 벗어 버렸습니까?

새 사람을 입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의 10,11절이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아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총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룩한 자녀들은 “...궁핍과 지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닦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12-13절).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의무를 닦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14절). 이처럼 참 신자들은 “제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롬 6:4). 여러분은 정결하고 신실한 새 사람을 덧입었습니까?

위엿 것을 구함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고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향하심을 지으실 터가 있는 생”을 바라보았습니다(히 11:10). 비록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믿을 가운데서 죽었지만 사는 날 동안 항상 그것을 좇았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명예, 부, 인정, 존경과 같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고 지으신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들은 항상 하늘에 있는 보화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위엿 것을 찾고 있습니까?

평강을 누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

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15절).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강이 머물고 있습니까? 평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참 평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평강을 다른 사람과 나눕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가요?

예배가 살아 있는 삶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16절). 찬양하고 경배하며 “참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엢 5:20)하는 삶이야말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행 16:25).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삶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마 28:18).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행 1:8).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행 2:14).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덧입히 주십니다. 이 능력으로 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승리의 삶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계 1:17-18).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고전 15:57).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토머스 8:37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우리를 사방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담히 이기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박진감 넘치고 영원에 속해 있으며 승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17은 선언합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른다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새로운 것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성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은혜는 어떤 죄인이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증인들이여

“이 후에 주께서 달리 침침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돌씩 앞서 보내시며...”¹ 침침 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²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눅 10:1-5; 10:15-24)

주님의 은혜로 많은 선교팀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있다. 돌아온 이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증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령의 큰 은혜가 있을 때 더욱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라. 자랑하지 말라.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죽으라. 회개하라. 선교지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라.

(위임독사님)

장로 칼럼

전하고 기도하는 15교구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니라”(행 5:42)

15교구는 관악산이 있는 관악구와 수도 서울의 생명 줄인 한강을 끼고 있는 동작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이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도시로 발전하면서 15교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특색이 있고 개성이 강한 8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이 성령의 불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이념과 풍속을 더 중시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저희 15교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뻐 주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구 식구들은 골고리를 향하여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며 나가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옥합을 갠 여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 예배 참석은 물론 구역예배, 전도회, 자원봉사 등 주님의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나와서 살기는 모습은 서로 간에 큰 기쁨과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움 뜻으로 하며”(벧전 5:2). 저희 교구 식구들은 교회의 모든 일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5대 목표에 순종하는 것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삶이 되며 기쁨이 된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실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7월 28일, 추가 팀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저희 교구를 통해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팀의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2006년 단기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 속에 나오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시는 주님을 ‘복음을 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참으로 기쁩니다.

이처럼 “전하고 기도하자”(행 5:42)는 교구 주재 말씀을 부어잡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날까지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의 믿음의 기도로 쓰임받는 15교구가 되도록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노영한 (15교구장)

중등부 증인들의 고백

- ♥ 선교지의 영혼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다.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것이다. (김지예)
- ♥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가고 싶다. (박연경)
- ♥ 나의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로 모든 것이 가능했다. (전 승)
- ♥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 또한 인간의 생각, 경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함을 깨달았다. (김아론)
- ♥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시다. (김정은)
- ♥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눈과 눈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아나라는 것을 느꼈다. (안은진)
- ♥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력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최귀상)
- ♥ 선교지의 영혼들이 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리를 들었을 줄 믿는다. (김영림)
- ♥ 선교가 힘들 것 같았지만 실제로 선교지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잘 들어 주었고, 웃음으로 대해 주어서 참으로 기뻐했다. (이영찬)
- ♥ 선교지의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읽어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최진주)
- ♥ 선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더욱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외쳤다. (이승연)
- ♥ 짧은 시간 때문에 전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였다. 정말 사탄의 막강한 힘을 보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역사와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만을 체험했던 선교가 되었다. (김아영)
- ♥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전도야?” 사역지에서 만난 한 아줌마가 하신 말씀이다. 갑자기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곧 내 마음속에선 ‘그렇다. 우리 못 한다. 그 나라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사람들도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훌륭한 통역사가 있다. 어디에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성령님이 있다. 기도하면서 전하면 된다. (오지애)’

예비해 주신 은혜

멤멤멤 올해도 어김 없이 불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2005년도 총현교회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처음 담임으로 계절학교를 맡았기에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갖고 어린 주의 새싹들에게 영의 양식을 배부리 먹여 주기를 기도하며 또 교사로서가 아니라 영아부 어린 심령들과 같이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거듭나겠노라는 다짐으로 임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 이 힘든 시대에 태어나서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고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준비와는 상관없이 주님은 예비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모든 순서 순서마다 은혜가 묻어났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어린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으로 섬기는 우리 영아부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리며, 또 한 번 나의 인간적인 걱정과 준비가 아무 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세대에 십자가의 진리 통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총현교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 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어린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고통스런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희란 (집사, 영아부 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 증인

항상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했었는데 교회에서 연합으로 하게 되어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모로 피곤했지만 파피 부흥회에서 찬양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가까워지길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옛날엔 부흥회 때에 선생님들께서 울부짖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정말 이상하게 보였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 부흥회에서는 천천히 작은 목소리로 "이 시간 나를 은혜로 채워 주세요."라는 시작의 말로 여러 가지 기도를 주님께 다 말할 수 있었다.

영혼 구원은 의인의 가장 지혜로운 열매라고 했다. 또 영혼 구원은 천국의 일이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내가 주위의 친구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나가는 선교지에 서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뻐다. 예수님께서 세상 일을 핑계대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제자가 되지 못 한다고 하셨다. 나의 생활에 빚되어 볼 때나도 이럴 때가 많다. 요즘은 선교 모임도 핑계대로 못 나간 적이 있었는데 나를 생각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먼저 있어야겠다고 느꼈다. 수련회 중에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은혜를 받지만 며칠 후면 또 무너질 것 같은 나를 생각해 본다. 그래서 수련회를 통해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주님과 교제를 하는 좀더 성숙한 신앙으로 채워야겠다. 이제 곧 선교지로 떠나는데 열심히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말씀을 전하고 싶다.

변해연(중등3부)

하나님!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총현교회 유년부에 다니는 1학년 김유림이에요. 저는 영아부 때부터 유아부, 유치부 모두 총현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유년부에 올라와서는 아바 엄마처럼 찬송가와 성경 말씀을 직접 찾아서 보게 돼서 처음엔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잘 찾을 수 있게 되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엔 아바 엄마랑 교회에 갈 때, 좀 출려서 가기 싫을 때가 있지만 일단 교회에 도착하면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엄마는 마음속의 기도로 "예수님!" 하면 언제든지 드든이 저를 지켜 주신대요. 그런데 학교의 친구들 친구들과 중에 교회에 안 가는 친구를 볼 때 "슬플 땐 누가 지켜 주고, 뜨거운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불안해요.

아직까지는 친구 1명밖에 전도를 못 했지만 앞으로는 많이 많이 전도할래요. 또 저는 유년부 찬양대는 아니지만 집에서 피아노와 찬양 연습 많이 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데 교회 음악가가 될래요. 그때까지 하나님 많이 도와주세요. 저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잘못된 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 예전에 교회에 다니다 한동안 방황을 했었고 형제들의 권면도 뒤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의 권면이 귀에 들어왔고 이렇게 교회에 다시 나와 새가족부를 수료하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최수애)

♥ 큰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인을 알고있고 하나님을 위해 남은 일생을 살고 싶습니다. (정관호)

♥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에 오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수료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김현상)

♥ 모태 신앙인데 남편을 만나 남편과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가족부에 함께 나와서 같이 믿음들 들으며 은혜를 받았고 기쁨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박진화)

♥ 어릴 때 교회에 다녔으나 사람을 보고 시험에 빠져 멀어졌는데 다시 20년 만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게 되었고 평일하신 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추영준)

♥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장 작)

♥ 겸손하고 남편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겸손과 사랑을 알려 주신 그분을 모두 만나길 바랍니다. 법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영훈 헌신인 부부)

♥ 교향 선배의 강력한 인도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게 되었고 30년 동안 출가면 담배를 끊게 하신 것과 아내를 전도하여 같이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창규)

♥ 남자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김지민)

♥ 주님을 믿고부터 내 질이 가벼워짐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내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기웅)

♥ 중매에 있는 어린 아들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잘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경부)

♥ 70년을 불교를 믿다가 10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하던 이웃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돌아온 길이니 기도하며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김수현)

♥ 시어머님의 금식만 반대와 남편의 반대와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새가족부를 수료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께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못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움을 느끼고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윤분)

2005년 하반기 장학생 명단

전액 장학생(3명)

3기(01): 이복순

4기(02): 오경희 기용영

대학원생(23명)

강미경	강영기	강진우	김경성	김민정	김민철	김혜진	박경배	박예선
박연미	박주희	백경섭	사 사	이규진	이나홍	이유미	이진아	전보은
정영근	정혜리	조수진	조인선	최준호				

대학생(120명)

강승호	강지은	곽원우	구은과	권예소	권지현	김누리	김대은	김묘성
김보미	김진영	김성훈	김소영	김연희	김용원	김윤경	김정윤	김지혜
김지희	김진경	김한미	김현경	김현우	김혜선	나지희	남윤경	노미소
노지은	다누리	동유창	박진진	박미연	박보람	박상희	박정아	박지영
박현정	박형직	박효진	배한희	백민지	백지연	변영현	서단비	손윤아
신성철	심재원	안윤정	염혜실	오 현	오용근	오태석	유미경	유나비
유재혁	유진우	윤영현	윤은진	윤지연	윤하원	이교은A	이교은B	이단비
이대오	이민형	이병진	이보람	이상훈	이선화	이성현	이성훈	이세익
이우주	이은주	이재욱	이주영	이주희	이지훈	이태원	이한림	이혜정
이호준	이화영	장성재	장우진	장정은	장현민	장혜진	전선권	전성원
전혜영	전혜정	정다희	정진희	조 행	조상미	조성환	조요셉	조은영
조종현	조현국	지은진	지호근	천진경	천한나	최 용	최진경	최예슬
최지성	최지용	추승민	한태범	해예디	홍경화	홍성은	황대원	황세연
황인호	황정현	황지훈						

고등학생(83명)

강 건	강민희	강부희	강성천	강윤정	강재구	고혜진	고홍섭	권도형
김가람	김남우	김대희	김도홍	김민수	김선아	김성은	김성혜	김소담
김예소	김예진	김용우	김유림	김유영	김재훈	김준환	김지선A	김지선B
김지예	김지윤	김지혜	김홍미	나경아	맹하늘	문가람	박다솔	
박상준	박은진	박정혜	박종미	백진수	백민아	복예성	송성배	송은혜
양준섭	오미가	오찬양	유가원	유신아	유지현	윤석호	이나현	이미영
이성구	이성진	이승이	이영철	이은기	이재원	이종원	이주원	이지연
이지윤	장윤호	전현숙	전지향	전하나	정도경	정신환	정성미	정영옥
정지혜	지은미	차병철	최민영	최나라	최유리	최진영	최한림	한사라
현슬기	황제민							

이상 229명

총헌 장학생 선발자 명성운원 실시(대학원생·대학생 선발자에 한함)

일시 : 2005년 8월 19일(금) 금요일집회 후 장소 : 베다니홀

절약합시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 있는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 의미를 제기할 신자는 없을 것이 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살아 있는 유기체가 병들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왜 병들고 왜 죽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에 필요한 보혈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골 2:5).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참 신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참 신자는 누구인가? 우리 자비를 부린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자이다(마 16:24). 이것은 이미 충만교회 신자라면 마음에 감히 새기고 있다. 다음으로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는 교회를 나 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신자이다(골 2:2). 현재 우리 교회의 신자들 모습 속에 이것이 약간 부족하다. 무더운 여름을 지내며 교회의 전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의 책만도 있을을 잊지 말자. 현재 냉방이 되고 있는 우리의 모임 장소를 살펴보자. 어떠한가? 혹시 열려 있는 창문과 문은 없는가? 모임을 마치고 비어 있는 코임에도 모든 전등이 켜진 채로 있는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화장실 전등과 휴지통 열마나 아껴 쓰고 있는가?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헌금이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낭비될 때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외에도 주차할 때 차단 전단 주차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후단 주차를 하여 독한 매 연으로 차단의 시물을 죽이고 있다. 또한 애견통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회는 무더운 여름 날씨 만큼이나 보혈의 양기로 뜨겁다. 이 충만한 보혈의 은혜가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도 쓰여지길 소망하며(대행 9:3), 어떻게 보면 한참에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우리와 교회를 더욱더 보혈의 은혜로 건강하게 할 것이다. 절약합시다. 기본 질서에 충실합시다.”

(총헌위원회)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송은 아버지가 작시하고 딸이 작곡한 찬송이다. 요한복음 14장 19절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 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리겠으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쓰였다. 보다 더 직접적인 동기는 어떤 날 이 찬송의 작사자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 Whittle, 1840~1900)의 친구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매시 간당신이 필요합니다 need Thee every hour”(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의 원문의 찬송을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이 매시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every moment)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찬송을 쓰게 된 것이다.

1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으로 우리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신 것을 찬양한다.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생명을 부여받았기에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면서 영광의 기쁨을 사모하며 나갈 것을 찬양한다.

후렴에 보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시니,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시나니 영광의 기쁨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 바라보다”라고 찬양한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구속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을 말한다.

2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시험이 있고, 무거운 근심과 걱정기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찬양한다.

3절은 마음 아플 때와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때 이른 눈물을 흘릴 바로 그때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며 언제나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찬양한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해 주신다. 이 약속처럼 주님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4절은 내 몸의 약함, 질병,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갈 수 있음을 찬양한다.

이 모든 위로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의 영생을 위한 죽음과 부활이기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배부른 하나님을 찬양하는 총헌의 성도가 되자.

(찬양위원회)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420	박세훈	16	장년1부	변순복(5)	2436	박재현	8	장년1부	이계록(6)
2421	안성국	10	장년1부	박태순(3)	2437	유은선	4	장년1부	허정숙(5)
2422	김정석	12	장년1부	김한(4)	2438	신영진	19	장년1부	박재정(6)
2423	김종선	13	장년1부	고혜원(1)	2439	김혜련	2	대학부	조순옥(11)
2424	서리과	19	대학부	장주연(1)	2440	김지현	4	장년1부	김우정(4)
2425	고국진	19	고등부	유선영(2)	2441	정민찬	19	장년1부	김상수(16)
2426	조동희	19	장년1부	이욱재(1)	2442	나혜희	13	장년1부	김상수(16)
2427	전수리	19	중등부	박상국(1)	2443	이보미로	19	외신부	주아미도(19)
2428	구자영	19	중등부	김도원(1)	2444	송비연	19	외신부	주아미도(19)
2429	이희자	2	장년1부	박순현(6)	2445	메르베르	19	외신부	
2430	김동환	1	장년1부		2446	발레리이	19	외신부	
2431	김현옥	19	장년2부		2447	지나스	19	외신부	공노재(19)
2432	김성물	19	장년1부	양재욱(1)	2448	오영가	19	외신부	버트게일(19)
2433	이현수	7	장년1부	이진규(9)	2449	오미한	19	외신부	버트게일(19)
2434	김소희	8	소양부	전경자(1)	2450	김주희	19	장년1부	권진희(6)
2435	김정현	6	장년1부	이계록(6)					

※ 총헌 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별 세

1. 강현순 송도(송명철 성도의 모친, 김춘자 집사의 시모, 1교구 한서2 구역)/5일 별세, 8일 장례
2. 송인수 집사(전제진 성도의 모친, 이경자 집사의 시모, 3교구 청성 구역)/5일 별세, 8일 장례

결 혼

1. 백문순 군(백종 집사, 송숙자 권사의 아들, 4교구)과 김지현 양(김용길 집사, 김연숙 집사의 딸, 순복음교회)/18일(목) 12:00 릴리움

◆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교회주변 전도의 날)

일시: 17일(수) 오전 11:00
대상: 전 교인 (교구별 예전도회 중심)
진행: ① 수요1부 예배 ② 교구별 영성훈련
③ 예전도회 월례회 ④ 교회주변 전도 실시

◆ CMTC 훈련 추가 실시

기간: 8월 28일(주일: 12강), 9월 4일(주일: 3,4강)
시간: 찬양예배후 18:10~20:10
장소: 갈릴리움

* 금년도 마지막 훈련이오니 미수료자는 이번 차수에 반드시 수강 바랍니다.

고등부 여름 수련회

· 일시: 14일(오늘) ~ 15일(내일) 1박 2일 · 장소: 충현기도원(찬양예배 후 봉양 및 출발)

2005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14일 (오늘)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최종철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이희식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40	기독교 (김익환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장 훈 목사)	교육관 304호		
8월 21일 (다음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이원덕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론 (하종철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관 (안치원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8월 28일 (주일)		성인 학습·세례식(지역 찬양예배, 봉양) 오후 4시 30분까지 입석바람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오후 3:30까지 입석바람	

8월 충현 기도회 창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되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라.
- ②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 ③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랑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라.
- ④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힘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로 함께 참여하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을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순회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를 십자가의 은사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8/15(월)	8/16(화)	8/17(수)	8/18(목)	8/19(금)	8/20(토)	8/21(주일)
설교자/기도자	조규구/윤석민	이재영/조홍진	황진설/김영록	이성진/박창식	최종철/박용기	양재홍/이수경	고광환/김정희

예배담당 안내 (8/17-8/21)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8/17	수요 I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호산나 찬양대)	안정덕 양명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행 19:8-16) 이창수 목사
8/17	수요 II	만약의 왕 내 주께서 (설교단 찬양대)	황진설 이정애	인자로 드러나라 하라니 (요 3:13-15) 김성훈 목사
8/19	금요일회	3교구/플로트 김진자·비리온 통교단	이창수	김성훈 목사
8/21	주일 I	(예배 전 찬양)	정성영 박용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골 3:8-17) 장 훈 목사
8/21	주일 II	네 마음을 화하여라 / 마이클린 아예드(암바뉴엘 오케스트라)	김준희 조종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골 3:8-17) 김익환 목사
8/21	주일 III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소프라노 정희영/합창단이 찬양대 솔로리스트	류병희 권영욱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골 3:8-17) 김성훈 목사
8/21	주일 IV	너 예수께 돌아와라 / 마이클린 김영애(아연 오케스트라)	이희식 이희식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골 3:8-17) 조규호 목사
8/21	주일 V	하는 가는 길은 같이 / 비올라 오가야(아연 오케스트라)	하종철 이희식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골 3:8-17) 최종철 목사
8/21	주일찬양	브리델 여성 찬양단/호산나 찬양대	윤수일 이홍우	신약의 교회(행 2:37-47) 김성훈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수화, 복귀가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오전 3:00(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3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구 분	시 간	차 량
집 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회	오후 11:00	금요일회 후 본당 앞 출발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시무장로	■ 부목사
김의철 김호준 노광현 오진국 이병화 이복대 정현민 박민기 류병희 김영훈	이복대 정현민 박민기 류병희 김영훈
이광선 이훈 남석우 김영길 김준구 여국근 안창덕 나영원 정진호 김용덕	이광선 이훈 남석우 김영길 김준구 여국근 안창덕 나영원 정진호 김용덕
최귀길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식 김광환 위관장 김철환 장 훈 임원택	최귀길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식 김광환 위관장 김철환 장 훈 임원택
안종욱 임우진 이길재 진종욱 신광렬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정홍신	안종욱 임우진 이길재 진종욱 신광렬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정홍신
이정우 김단우 한승규 김영주 김갑기 이경춘 이창수 김준희 윤수일 황진철	이정우 김단우 한승규 김영주 김갑기 이경춘 이창수 김준희 윤수일 황진철
원운철 이광수 안우현 황미진 김진형 정태두	원운철 이광수 안우현 황미진 김진형 정태두
최윤덕 이계인 박덕영 이태식 정태두	최윤덕 이계인 박덕영 이태식 정태두
박용규 권만옥 조종환 배준식 김영달 김기현 김기현 김기현 김기현	박용규 권만옥 조종환 배준식 김영달 김기현 김기현 김기현 김기현
이철호 최희주 노영원 박철구 정성길	이철호 최희주 노영원 박철구 정성길
신상수 고재승 김성환 김영진 이덕욱 이광진	신상수 고재승 김성환 김영진 이덕욱 이광진
정원철 김승근 함철주 윤석진 정현민	정원철 김승근 함철주 윤석진 정현민
김은철 전학배 김성진 전계식 김형근	김은철 전학배 김성진 전계식 김형근
장승규 전은배 서석식 구재환 송두성	장승규 전은배 서석식 구재환 송두성
■ 전임목사	■ 전임목사
이창수 원운철 현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창수 원운철 현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규주 김갑기 안태준 김경원 장준자	이규주 김갑기 안태준 김경원 장준자
강덕원 최본설 천은희 김성호 김경자	강덕원 최본설 천은희 김성호 김경자
이수경 김경희 이복순 유진희 한성일	이수경 김경희 이복순 유진희 한성일
임태주 강명기 옥미자	임태주 강명기 옥미자
■ 찬양감독	■ 찬양감독
전임목사	전임목사
전임목사	전임목사
전임목사	전임목사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층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3:3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